

경상수지 적자 대폭확대의 원인분석

- 한국은행 -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주종품목의 수출가격 급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에 주로 기인한 것이지만, 엔화 약세, 소비재 및 에너지 수입 급증, 고비용-저효율 경제 구조심화 등의 요인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화와 재정 의 긴축적인 운용을 통하여 총수요의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절약 및 저축증대를 통해 수입수요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음. 이와 아울러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 개선, 기술개발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서둘러야 할 것임.

1. 경상수지 동향

- 경상수지는 지난해중 23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에 비해 148억달러 악화되었음.
- 전년보다 무역수지 적자가 105억달러, 무역외수지 적자가 40억달러 확대됨.
- 이에따라 자본수지 흑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합수지 (경상수지+자본수지+오차 및 누락)가 92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음.

2. 경상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

가. 수출단가 급락

- 지난해 수출물량은 19%나 늘었으나, 주종품목의 수출가격이 13% 급락함에 따라 금액기준 수출이 3.7%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의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음.
- 95년중 높은 수출증가를 주도하였던 반도체 등 전

국제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1993	1994	1995(A)	1996(B)	B-A
경 상 수 지	3.8	-45.3	-89.5	-237.2	-147.7
무 역 수 지	18.6	-31.5	-47.5	-152.8	-105.3
무역외수지	-19.7	-19.9	-36.4	-76.8	-40.4
이 전 수 지	4.9	6.0	-5.6	-7.6	-2.0
자 본 수 지	68.8	90.2	134.2	172.3	38.1
장 기	89.0	58.6	78.3	118.1	39.8
단 기	-20.2	31.6	55.9	54.2	-1.7
총 합 수 지	65.4	28.2	30.3	-57.4	87.7
경상수지/GDP(%)	0.1	-1.2	-2.0	-4.7	-2.7
자본수지/GDP(%)	2.1	2.4	2.9	3.4	0.5
종합수지/GDP(%)	2.0	0.7	0.7	-1.1	-1.8

주요 품목별 수출단가, 물량 및 금액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대비,%)

	1995			1996		
	단 가	물 량	금 액	단 가	물 량	금 액
중화학공업제품	5.1	30.8	37.5	-18.3	23.6	0.9
(전 기 전자)	3.2	39.8	44.3	-42.6	62.4	-6.8
(화 학)	22.6	19.6	46.6	-14.8	15.4	-1.6
(철강 금속)	11.2	15.3	28.1	-8.0	-20.5	-26.8
(기계 류)	-4.5	41.0	34.4	1.9	8.1	10.8
(자동차)	6.1	48.5	57.5	-1.4	28.2	26.4
경공업제품	4.7	8.9	14.0	-2.1	9.8	7.5
(섬유 류)	3.3	2.2	5.6	-2.0	0.1	-2.1
전기전자·화학 철강금속	8.1	30.1	40.6	-30.3	28.4	-10.6
기 타 품 목	4.3	20.2	25.4	-6.9	19.5	11.3
전 체 수 출	5.0	24.1	30.3	-12.8	19.0	3.7

기·전자제품과 화학제품, 철강·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단가가 급락하였음.

-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수출물량 증가율은 전년의 40%에서 62%로 높아졌으나, 수출단가가 43%나 하락하여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이와 같은 수출단가 하락은 원화 절하에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 주로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국제시세

하락에 기인한 것임.

- 지난해 무역수지 변동요인을 물량요인과 가격요인으로 나누어보면 물량요인에 의해서는 무역수지가 77억달러 개선된 효과가 있었으나, 가격요인(교역조건악화요인)에 의해서 183억달러 악화되었음.
- 가격요인중 수입단가 하락에 의해서는 무역수지가 6억달러 개선되었으나, 수출단가 하락에 의해 188억달러 악화되었음.

수출입단가, 물량 및 금액 변동률

(단위 : 전년대비, %)

	1993	1994	1995	1996
단가 상승률				
수출	0.4	1.7	5.0	-12.8
수입	-3.8	0.5	8.9	-0.4
물량 증가율				
수출	6.9	14.8	24.1	19.0
수입	6.5	21.5	21.2	11.7
금액 증가율				
수출	7.3	16.8	30.3	3.7
수입	2.5	22.1	32.0	11.3
무역수지(억달러)	18.6	-31.5	-47.5	-152.8

무역수지 변동요인 분석

(단위 : 전년대비, 억달러)

	1993	1994	1995	1996
무역수지변동액	40.1	-50.1	-16.0	-105.3
가격요인	34.2	10.7	-45.7	-182.5
수출단가	3.3	15.8	59.2	-188.3
수입단가	30.9	-5.1	-104.9	5.8
물량요인	5.9	-60.7	29.7	77.2
수출물량	54.5	111.5	236.1	238.7
수입물량	-48.6	-172.2	-206.4	-161.6

주: 1) 가격요인은 국제수지 기준 수출(수입)액에서 수출(수입)단가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했다고 가정할 경우의 수출(수입)액을 뺀 것이며, 물량요인은 수출(수입)액의 전년동기대비 변동분에서 가격요인에 의한 변동분을 뺀 것임.

96년중 주요품목별 수출 변동요인 분석

(단위 : 전년대비, 억달러)

	가격요인	물량요인	합계
전기전자	-181.3	163.4	-17.9
화학	-12.3	11.1	-1.2
철강금속	-6.4	-20.4	-26.7
합계	-199.9	154.1	-45.8

-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효과를 주요품목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이 181억달러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화학제품과 철강·금속

제품도 각각 12억달러와 6억달러에 달함.

○ 과거에도 무역수지 악화가 교역조건 악화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수입단가의 상승이 아닌 수출단가 하락에 따라 교역조건이 악화된 점이 다름.

나. 엔화 약세

○ 지난해중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4.2% 절하되었으나 대엔화 환율은 11.5% 절상되었음.

- 지난해말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저점 (95년 7월말 756.5원/달러)대비 10.4% 절하, 원/엔화 환율은 저점 (95년 5월말 913.6%원/백엔)대비 25.7% 절상되었음.

○ 이와 같은 엔화 약세에 따라 전자제품 이외 품목의

원화의 대미달러 및 대엔화 환율 동향

(평균환율 기준)

	1993	1994	1995	1996
원 / 달러	802.7	803.6	771.0	804.8
	(-2.7)	(0.1)	(4.2)	(-4.2)
원 / 엔 ¹⁾	725.7	787.9	824.5	739.6
	(-15.0)	(-7.9)	(-4.4)	(11.5)

주: 1) 100엔당

2) ()내는 전년대비 절상·절하(-)율

경우 일본의 수출단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폭으로 하락하였음.

- 특히 자동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수출단가가 1.4%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993	1994	1995	1996
대선진국	0.1	13.7	27.9	-8.2
(대미)	0.3	13.3	17.4	-10.2
(대일)	-0.3	16.9	26.1	-7.5
대개도국	16.5	20.1	32.7	15.6

하락에 그쳤으나, 일본은 10% 이상 하락하여 일본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10% 정도 약화되었음.

한국과 일본의 수출단가 상승률 비교

(단위: 전년대비,%)

	1993	1994	1995	1996
한국 (전자제품 이외)	0.4 (-0.1)	1.7 (1.5)	5.0 (5.8)	-12.8 (-7.2)
일본 (전자제품 이외)	9.2 (9.8)	7.7 (7.7)	8.0 (7.4)	-7.5 (-10.7)

○ 90년대 들어 한일간 수출경쟁관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시장에서 일본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대선진국 수출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다. 고비용 - 저효율 경제구조 심화

○ 지난해 들어 임금상승률이 다시 높아지고 지가도

참고 1

과거교역조건 악화기와의 비교

무역수지 악화 요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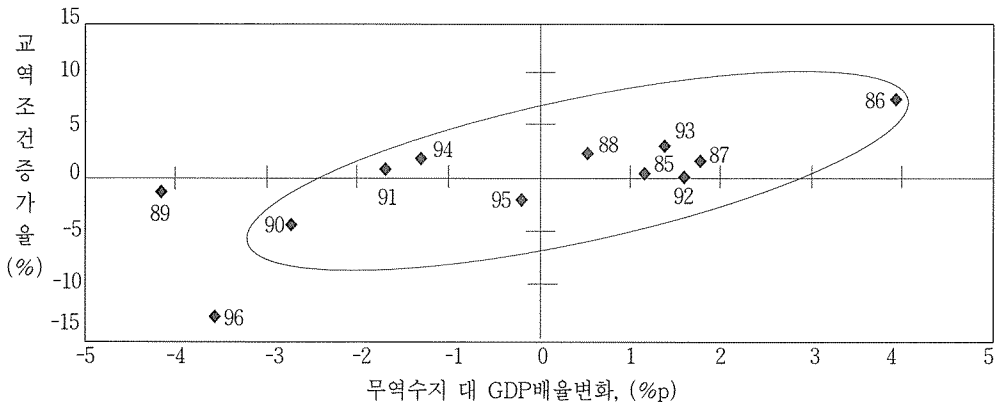
(단위: 전년대비, 억달러)

	1974	1979	1996
무역수지 변동액	-13.7	-26.1	-105.3
가격요인	-13.5	-10.6	-182.5
수출단가	9.5	24.2	-188.3
수입단가	-23.0	-34.8	5.8
물량요인	-0.2	-15.5	77.2
수출물량	2.9	-4.2	238.7
수입물량	-3.2	-11.3	-161.6

○ 70년대 이후 교역조건 악화가 대폭적인 무역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74년과 79년, 그리고 96년의 3개년임.
- 이 중 74년과 79년에는 석유파동에 따른 수입단가 급상승으로 교역조건이 현저히 악화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음.

교역조건과 무역수지 추이 비교

(85~96년중)



상승하는 등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가 더욱 심화되었음.

주요 비용관련 지표추이

(단위: %)

	1993	1994	1995	1996
제조업 명목임금 상승률	10.9	15.5	9.9	12.5 ¹⁾
회사채 수익률 (3년단기)	12.6	12.9	13.8	11.9
지 가 상 승 률	-7.4	-0.6	0.6	1.0
수입물가지수 상승률 ¹⁾	2.0	10.6	-0.6	5.6

주 : 1) 1~11월중

2) 원화표시, 전년말월대비

- 기업의 재료비 인건비 등 총비용이 10% 상승할 경우 수출단가가 2.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에도 비용상승요인에 의한 가격경쟁력 약화가 지속되었음.

라. 소비재 수입 확대

- 지난해 소비재 수입이 21%의 높은 증가율 (전년대비 30억달러 증가)을 나타내었으며, 소비재의 수입증가 기여율도 95년까지의 10% 내외에서 96년에는 20%로 급상승하였음.

수입증가 기여율

(단위: %)

	1994	1995	1996
소비재	11.7	9.3	19.4
원자재	35.4	50.7	45.5
자본재	53.0	40.1	35.1

- 세부품목별로는 의류 (39%), 신발 (35%), 가구 (30%), 승용차 (3000cc 이상, 98%), 골프용품 (76%) 등의 수입이 급증하였음.

- 이러한 현상은 국산소비재가 수입소비재에 비해 저가품은 가격면에서, 고가품은 품질 및 성능면에서 뒤

떨어짐에 따라 외국상품의 국내시장 침투가 확대된 데 기인함.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전년대비, %)

	1993	1994	1995	1996
총수입	2.5	22.1	32.0	11.3
소비재	2.4	24.6	27.8	21.2
원자재	4.2	14.8	32.6	10.2
자본재	0.1	32.1	32.5	10.0

- 내수용 소비재 수입중 고급품 수요증대에 따른 수입이 44%, 국산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입이 14%의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 42%가 국내 생산 부족 또는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임.

* 총소비지출중 수입소비재의 비중이 95년중의 4.8%에서 96년 1/4~3/4분기중에는 5.4%로 상승

소비재수입액/총소비지출

(단위: %)

1993	1994	1995	1996.1/4~3/4
4.1	4.5	4.8	5.4

- 직접적인 소비재 수입 외에 소비재 국내생산을 위한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까지 감안할 경우 소비를 위한 수입 증가분은 약 79억달러로 추정됨.

소비, 투자 및 수출의 수입유발효과 시산

(단위: 억달러)

	1993	1994	1995	1996
소 비	26.9	52.7	76.6	78.7
투 자	10.8	54.1	84.2	46.4
수 출	15.7	38.6	81.3	13.0

주 : 1) 국민계정통계 및 산업연관통계(수입유발계수) 등을 이용하여 시산한 것으로서 전년대비 수입 증가효과임.

- 소비재 수입 증가분 3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49억 달러는 내수용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증가에 반영됨.

소비재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억달러)

	1993	1994	1995	1996
의류	325.1 (32.7)	615.6 (89.4)	940.6 (52.8)	1306.1 (38.9)
신발	152.7 (35.1)	230.2 (50.8)	351.7 (52.8)	474.1 (34.8)
가구	156.5 (23.3)	245.9 (57.1)	365.4 (48.6)	473.9 (29.7)
승용차 ¹⁾	5.4 (-37.6)	15.5 (188.9)	64.0 (311.9)	126.8 (98.1)
골프용품	21.3 (-17.5)	22.9 (7.7)	62.5 (172.9)	110.3 (76.3)

주 : 1) 3000cc이상

2)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마. 에너지 수입 급증

○ 에너지 수입액이 95년중 23%(36억달러) 늘어난 데

이어 96년중에는 27%(52억달러)나 증가하였음.

-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이 242억달러로 총수입의 16%, 무역수지 적자액의 1.6배에 달함.

○ 이와 같이 에너지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로 인하여 에너지소비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함.

에너지수입 추이

(단위 : 억달러)

	1993	1994	1995	1996
원유	91.5 (-4.2)	88.8 (-3.0)	108.1 (21.7)	144.3 (33.5)
기타	59.1 (15.7)	65.2 (10.4)	81.7 (25.3)	97.5 (19.3)
계	150.6 (2.8)	154.0 (2.3)	189.8 (23.2)	241.8 (27.4)

주 : 1)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참고 2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쟁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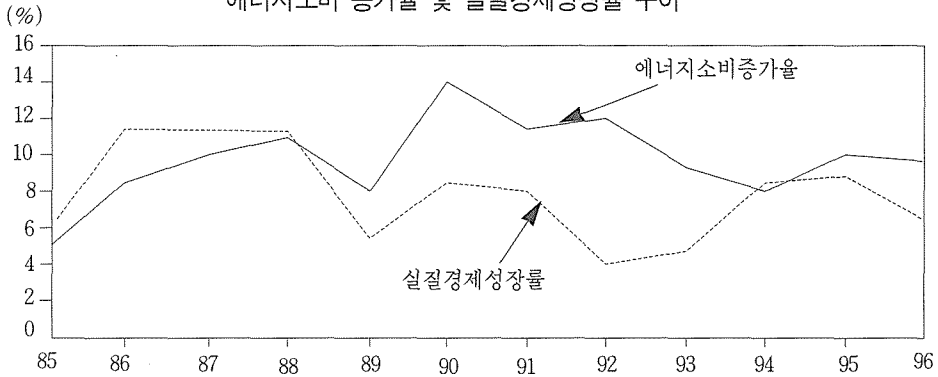
○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쟁관계를 양국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90년까지만 하여도 양국의 대미 수출 상위 5대 품목중 공통되는 품목은 전기·전자와 일반기계 2가지였으나, 95년에는 전기·전자,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 등 4개 품목으로 늘어나 양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 일본의 대미 수출상품구조 비교

순위	1990		1995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전자	일반기계류
2	신발류	일반기계류	일반기계류	자동차
3	의류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전자
4	일반기계류	정밀기계	의류	정밀기계
5	가죽제품	철강	철강	철강

주 : 1) 미국 통관통계상 한국 및 일본으로부터의 HS 2단위 품목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의류는 HS 61(편물제 의류) 및 62(기타 의류), 철강은 HS 72(철강) 및 73(철강제품)을 합쳐하여 시산

에너지소비 증가율 및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무역외수지 동향

(단위 : 억달러)

	1993	1994	1995	1996		1993	1994	1995	1996
무역외수지	-19.7	-19.9	-36.4	-76.8	운수 및 보험	-6.5	2.4	-0.5	17.4
수입	182.5	225.5	298.6	306.5	여행	-5.7	-11.7	-11.9	-26.2
	(14.0)	(23.5)	(32.4)	(2.6)	투자수익	-13.3	-16.7	-24.0	-25.5
지급	202.2	245.4	335.0	383.3	기타	5.9	6.1	-0.0	-7.8
	(8.6)	(21.4)	(36.5)	(14.4)					

-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및 냉난방용 에너지수요 증대에 따라 90년대 들어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대폭 증가하였음.
- 또한 GDP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소비량(에너지원單立)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실질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음.

1인당 에너지소비량

(석유환산톤)

1985	1990	1995	일본(95)
1.15	2.17	3.35	3.91

에너지 원단위

1985	1990	1995	일본(95)
0.36	0.37	0.41	0.10

주 : 1)불변 GDP 천달러당 석유환산톤(TOE) 기준임.

바. 무역외수지 악화

- 96년중 무역외수지 적자가 전년의 36억달러에서 77억달러로 대폭 확대되었음.
- 여행수지 적자*가 전년의 12억달러에서 26억달러로 운수 및 보험수지 적자가 1억달러 미만에서 17억달러로 크게 확대되었음.
- * 전년에 비해 해외여행지수가 급증하고 1인당 해외 여행경비 지급액도 높은 수준을 지속한 데 기인함.

3. 개선방향

가. 기본방향

-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은 주중품목의 수출가격 급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엔화 약세, 소비재 및 에너지 수입 급증, 고비용·저효율 경제구

조 심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임.

-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교역조건 개선,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 개선 및 기술개발에 의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총수요의 조절 등이 필요함.
- 그러나 해외여건의 호전이 없이는 교역조건 개선이 어려우며 단기에 있어서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의 개선 등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한계가 있음.
- 또한 원화 절하도 경상수지 개선효과는 있지만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커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통화와 재정의 긴축적인 운용으로 총수요의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절약 및 저축증대를 통해 수입수요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
- 총수요 억제는 직접적인 경상수지 개선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최대과제의 하나인 물가안정 및 금리 하향안정화를 앞당기는 효과도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

나. 부문별 정책방향

(1) 총수요의 적정화

-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통화의 안정적 공급과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총수요 확대를 최대한 억제함.
- 경상수지 적자기조에서 흑자로 전환한 나라들을 예로 보면 총수요 억제를 통한 물가안정이 경상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
-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아일랜드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기에 6~13%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낮아지면서 흑자기조 정착

(2) 소비수요 축소와 저축증대

- 미시적인 측면에서 금융·세계상의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소비수요의 축소와 저축증대를 도모해야 함.
- 사치성 고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고 소비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국의 물가상승률 추이 (소비자물가 기준)

(단위 : %)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아일랜드
경상수지 적자기	6.7	7.9	6.6	13.1
경상수지 흑자기	2.0	2.1	2.5	2.8

주 : 프랑스는 80~91년, 덴마크는 75~89년, 벨기에는 77~84년, 아일랜드는 75~86년중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지속하였으나 각각 92년, 90년, 85년, 87년이후 흑자기조로 전환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 주요국의 경상수지 흑자전환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97년 1월

성업소에 대한 과세 강화

fN에 : 귀금속, 고급가구, 고급승용차, 대형 가전제품 등

- 기업 접대비의 손비인정 한도(현행 매출액대비 0.1~0.3%) 하향조정 추진
- 장기저축에 대한 세계상의 유인(면세상품 확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한도 인상)을 강화 하는등 저축증대 노력 강화

제조업 연구개발비의 대매출액 비율

(단위 : %)

한국	일본(93)	미국(92)
2.25	3.47	4.20

(3)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 고비용-저효율구조 개선에 의한 산업체질 강화,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에 의한 가격 및 비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특히 해외시장에서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고급 수입소비재와 경쟁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에 주력
- 현행 WTO체제하에서도 기업 연구개발비의 75%, 신상품개발비의 50% 범위내에서는 지원이 허용되는 점을 최대한 활용, 금융·세계상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도

〈한은정보 '97, 4월호〉